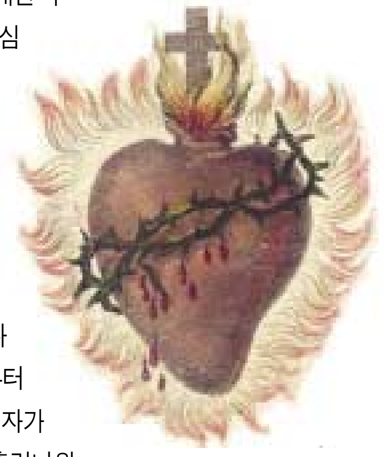
예수 성심 성월

편집팀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가톨릭교회는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제정해, 예수 성심께 대한 우리들의 신심을 굳건히 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 성심 신심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는 데 있으므로, 교회는 이 시기가 되면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걸맞은 삶을 살기를 권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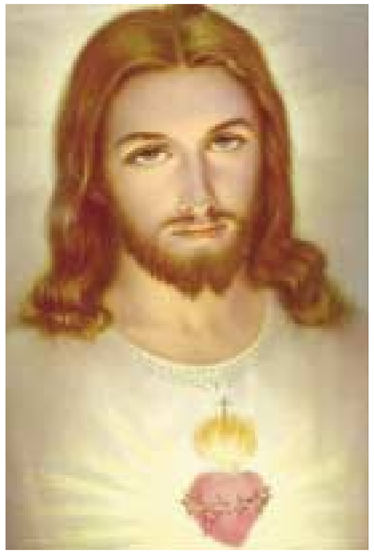
◆ 예수 성심 성월의 유래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신심은 요한복음의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7, 37-38)라는 구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19, 34)는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교부들은 이에 대해, 앞의 구절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생명수의 원천임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의 말씀에서 언급된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는 각각 세례와 성체성사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교부들은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리신 곳을 심장으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심장, 즉 그분의 마음에서 구원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며, 그곳이 모든 은총의 근원이라 여겼습니다.

이러한 예수 성심께 대한 공경이 체계를 갖추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계기는 성모 방문 수녀회(The Visitation Order)의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1647-1690) 수녀에게 전해진 예수 성심에 관한 메시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인에게 무려 70여 회나 발현하시어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을 알려 주셨다고 합니다.

알라코크 성인이 이 환시 체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수 성심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② 예수 성심을 통해 나타나는 하느님의 사랑은 그에 보답하는 인간의 사랑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갈망하신다. ③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세상의 죄악을 배상하는 탁월한 방법으로, 예수 성심께서는 우리가 영성체를 모시고 성시간 기도를 바치기를 바라신다. ④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특별한 축일을 제정하여 지내라.



이후 교회가 알라코크 성인이 받은 계시를 인정하면서 예수 성심 신심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는데, 특히 교황 비오 9세는 예수 성심 축일을 전 세계 교회의 축일로 확대했고, 교황 레오 13세는 전 인류를 예수 성심께 봉헌하였으며 예수 성심 축일을 대축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예수 성심 성월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예수 성심 성월에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작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로하고 사랑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당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그 상처를 갚아야 합니다.

한편 예수 성심 성월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열리는 신심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중 성시간은 한 시간 동안 겟쎄마니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마태 26, 40)라고 하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는데, 성체 현시와 예수 수난에 대한 묵상, 장엄 기도, 성가, 성체 강복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밖에도 예수 성심 성월에는 기도와 희생, 보속 등의 신심 행위가 이루어지며, 교회에서는 특별히 성월 기도로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가톨릭 디다케」 2012년 6월 '교리 아락실'
「가톨릭 디다케」 2008년 6월 '빼기 신부의 교리 더하기'
「가톨릭 디다케」 1996년 6월 '이달의 전례 신심'